

2023학년도 논술 모의평가

인문계열 [문제 1] 해설 및 모범답안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1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인문계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집단주의, 개인주의, 유행, 자존감, 부동심, 아파테이아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문항 및 자료

[[문제 1] (가)의 ‘A씨’와 ‘B씨’의 대답의 근거를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다)의 ㉠을 ‘B씨’의 관점에서 서술한 다음, ㉡의 이유를 (다)에서, 해결 방안을 (라)에서 찾아 논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행복해 보이는 표정의 주인공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 그림에는 주인공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을, 두 번째 그림에는 주인공 주변 사람들이 불행한 표정을 짓고 있다. **A씨**는 두 그림 모두 주인공이 행복하다고 대답한 반면, **B씨**는 첫 번째 그림 속 주인공만 행복하다고 대답했다.

(나)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자연을 대상화하고 이를 관찰한다. 여기서는 인간을 자연과 분리하여 분석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자연과 다른 인간의 본성으로서 이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성적 능력을 발휘함으

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기 자신을 개별적이고 고유하고 다른 자아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이 자율적이고 독특한 개별성을 가진 타인과 구분되는 존재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독특한 권리, 요구 등을 드러내는 태도와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고 동참하며, 자연과 하나되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생명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유기체적인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을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여기듯, 인간은 사회속에서도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러한 특성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자신을 관계지향적이고 다른 자아들과 비슷하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전통을 따르고 의무를 다하며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본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가족 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 확대되어 개인 및 집단간의 조화,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하는 의식으로 나타난다.

(다)

㉠ 유행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유행은 한편에서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결함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대한 집단적 폐쇄성을 의미한다. 유행은 한편으로 그것이 모방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를 충족한다. 다시 말해 유행은 개인을 누구나 다 가는 길로 안내한다. 유행의 경우 관계의 힘에 더 좌우될수록 개인의 자유 의지가 집단의 주된 흐름으로부터 분리되기 어렵다. 무언가가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회자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은 유행에 뒤쳐진 것처럼 여겨지고, 유행하는 제품을 사고 나면 최소한 남들로부터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다른 한편 유행은 차별화 욕구를 만족시킨다. 다시 말해 구분하고 변화하고 부각하려는 경향을 만족시킨다. 이는 유행의 내용이 변화하면서 현재의 유행은 어제나 내일의 유행과 다른 개별적 특징을 갖게 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유행이 언제나 계층적으로 분화한다는 사실에도 입각한다. 상류층의 유행은 그보다 신분이 낮은 계층의 유행과 구분되고 낮은 신분의 계층에 동화되는 순간 소멸한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해 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개성 즉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에 비해 유행에 덜 민감하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곧 ㉡ 자아가 약한 사람들이 유행에 더 민감하다는 의미이다. 유행을 따르는 것은 자아가 약하고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유행에 선동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자존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이다. 만일 개인이 스스로가 마음에 들어 자신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린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되고 이는 높은 자존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만일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이는 자기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져 낮은 자존감을 형

성하게 되고, 그 사람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다. 이때 사람은 자기를 고양하여 앞서 경험한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려 하는데 이 경우 비교적 쉽게 자아를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이 유행을 따르는 동조 소비이다. 자신을 빛나게 해 주는 물건을 소유하면 자존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라)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우리를 둘러싼 외적인 것들은 이미 이성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의지대로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쾌락, 아름다움, 부, 명예나 이와 반대되는 고통, 추함, 가난, 나쁜 평판 등은 모두 우리의 행복과 무관하므로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스토아 학파는 행복의 기초를 우리의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태도나 행위의 동기와 같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행복과 무관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동요하게 되는데, 이는 정념이 이성을 가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그들은 사람들이 정념에 빠지면 근거 없는 기쁨과 슬픔, 공포 등에 사로잡히고 이성적 판단이 흐려져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정념이 없는 상태를 아파테이아라고 하였는데 이는 어떠한 외부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의 의연함을 뜻한다. 스토아학파는 아파테이아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아 이성과 자연법을 따르는 평온한 삶을 지향하였다.

한 개인은 끊임없이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외부의 힘은 한 개인의 힘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인다. 현실 권력의 힘, 주변의 상황 등이 언제나 각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맹자는 어떤 사람들은 외부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이러한 태도를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 즉 부동심이라는 말로 요약한다. 마음과 감각 기관의 관계에 대한 맹자의 설명은 큰 몸과 작은 몸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귀나 눈과 같은 작은 몸은 수동적이다. 작은 몸은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면 그래도 끌려간다. 이는 작은 몸이 개인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은 이와는 반대로 움직인다. 마음은 외부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 기관의 활동과 달리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를 얻게 되어 있다.

작은 몸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외부에 의해 끌려 갈 수 있으며, 큰 몸 즉 마음에 이끌려 갈 수 있다. 작은 몸인 감각 기관이 외부 대상에 끌려가 무절제하게 욕망에 탐닉하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마음에 있다. 이는 각 개인이 저지르는 악의 기원과 그 책임의 소재를 말해 준다. 언뜻 보기에 각 개인이 저지르는 악은 감각 기관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우리 몸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마음이 제 역할을 해 나갈 때, 마음은 눈, 코, 혀, 피부 등의 오관과 같은 몸의 다른 부분들을 이끌어 각 개인을 책임감 있는 존재로 형성해 가게 한다. 마음의 활동에 감각 기관의 활동도 따라

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출제 의도

- 유행과 같은 동조 소비는 현대 소비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주변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추구함으로써 균등화와 안도감을 느끼거나 유행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만족감을 얻기 위한 동기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유행은 개인이 속한 문화권 (집단주의 또는 개인주의)의 속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유행은 낮은 자아 존중감으로 인한 자아의 회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유행은 과소비와 과시 소비와 같은 불합리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본 문제는 고등학교 독서,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유행 현상, 유행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의 특성, 마음과 자아에 관한 동양과 서양 사상을 논제로 삼아 학생들의 논술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출제했다.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성취 기준 1	[12사문03-01]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관련 제시문 (나)	
	2.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성취 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관련 제시문 (다), (라)		
3.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성취 기준 1	[12생윤05-02]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으며 윤리적 소비 실천의 필요성을 설명할	
관련 제시문 (다)		

	수 있다.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12윤사01-02] 우리의 도덕적 삶에서 한국 및 동·서양의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하는 역할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들을 탐구하고,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관계를 토론할 수 있다. [12윤사03-03] 행복에 이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쾌락의 추구하고 금욕의 삶을 강조하는 윤리적 입장을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과 한계를 토론할 수 있다.	제시문 (가), (나), (라)

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사회문화	신형민 외 4인	비상교육	2018	92	제시문 (나)	X
고등학교 독서	서혁 외 5인	좋은책신사고	2019	30-32, 120-122	제시문 (다), (라)	O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외 6인	미래엔	2018	168	제시문 (다)	O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9인	교학사	2019	19-20	제시문 (가), (나)	O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류지한 외 8인	비상교육	2019	114-116	제시문 (라)	O

문항 해설

- 본 문제의 취지는 제시문 (가)의 심리학의 실험에 서술된 결과의 근거를 제시문 (나)의 집단주의/개인주의 문화권의 특성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제시문 (다)의 유행이 현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유를 제시문 (나)의 문화권의 특성을 활용하여 서술한 후, 제시문 (다)에서 유행의 근본 원인인 자아의 문제를 설명하고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는 해법을 제시문 (라)의 서양 사상 (스토아 학파)과 동양 사상 (맹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동심의 개념을 활용하여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 제시문 (가)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권의 특성을 반영한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과 설명이다. 제시문 (나)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권의 특성을 대비시켜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유행의 동기를 균등화, 차별화, 낮은 자존감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서양의 스토아 학파와 동양의 맹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아파테이아 (부동심)을 서술하고 있다.

- 이 문제는 제시문 각각의 핵심 논지를 이해하고 서술하는 능력, 각각 제시문 (가)와 (나), 제시문 (나)와 (다)의 핵심 내용을 관련짓는 능력, 제시문 (라)의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특정 관점을 설명하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 아래 ①~⑤의 각 항목당 최대 10점씩, 합계 50점.</p> <p>① 제시문 (가)의 A씨와 B씨의 대답의 근거를 각각 제시문 (나)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관점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설명했을 경우 최대 10점.</p> <p style="margin-left: 20px;">- 모범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p> <p style="margin-left: 20px;">- Key words: 개인주의, 집단주의</p> <p>② 제시문 (다)의 ㉠에 대해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B씨의 관점과 일치하는 제시문 (다)의 해당 내용을 적절하게 서술했을 경우 최대 10점.</p> <p style="margin-left: 20px;">-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p> <p style="margin-left: 20px;">- Key words: 유행, 사회적 의존, 타인과의 결합</p> <p>③ ㉡의 이유에 대해 제시문 (다)의 자존감의 개념을 활용하여 적절히 서술했을 경우 최대 5점.</p> <p style="margin-left: 20px;">- 모범답안의 세 번째 단락 참조</p> <p style="margin-left: 20px;">- Key words: 자존감, 유행, 소비, 자아</p> <p>④ ㉢의 해결 방안에 대해 제시문 (라)의 스토아 학파와 맹자의 부동심을 활용하여 적절히 서술했을 경우 최대 15점.</p> <p style="margin-left: 20px;">- 모범답안의 네 번째 단락 참조</p> <p style="margin-left: 20px;">- Key words: 스토아 학파, 맹자, 아파테이아, 부동심</p> <p>⑤ 비문이 없고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경우 최대 10점</p> <p>⑥ 총 글자 수 600-700자는 5점 감점</p> <p>⑦ 총 글자 수 500-600자는 10점 감점</p> <p>⑧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최대 20점 이하 점수 부여</p> <p>⑨ 총 글자 수 800자 초과는 5점 감점</p>	

예시 답안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A씨는 개인이 고유하고 타인과 구분되며 자신이 타인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림의 주인공 주변 사람들의 표정과 무관하게 두 그림 모두 주인공이 행복하다고 답한다. 이에 반해 집단주의 문화권의 B씨는 인간은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며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질서를 따르는 상호의존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B씨는 주변 사람들이 불행한 표정을 짓는 그림 속 주인공은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한다.

㉠에 대해 B씨의 관점에서 유행은 사회적 의존과 타인과의 결합 욕구와 관련된다. 유행은 개인을 누구나 다 가는 길로 인도하며 관계의 힘이 클수록 집단의 흐름에 따라가게 되는데 이는 개인이 속한 집단으로부터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준다.

자존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로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쉽게 자아를 높일 수 있는 유행을 따른다. 유행하는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자존감이 올라가므로 소비를 통해 자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한다.

(라)에서 스토아 학파는 사람들은 내면의 행복과 무관한 정념에서 벗어나 어떤 외부의 상황에도 동요되지 않는 정신의 의연함인 아파테이아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맹자는 사람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에 동요하지 않는 부동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감각은 외부에 의해 영향을 받아 무절제와 욕망에 빠지는데 이는 마음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이다. 따라서 유행이라는 외부 환경에 우리의 정념과 감각이 이끌리지 않도록 이성애 따른 아파테이아인 부동심을 갖춤으로 긍정적인 자아를 유지하자. (800자)